

중국을 주께로

제 7 호

1990. 8.

你們要去，使萬民作我的門徒，奉父子聖靈的名，給他們施洗。凡我所吩咐你們的，都教訓他們遵守。我就常與你們同在，直到世界的末了（馬太福音 28章 19~20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불찌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장 19~20절)



(표지설명 : 中國 大連基督教會)

- 차례 : 선교의 때 (안병국) / 1
사막의 단쟁 (말씀 묵상) / 2
중국기독교사 I / 4
중국기독교사 II / 9
중국기독교인물소전 (王元深) / 14
중국의 종교 자유를 분석함 / 17
하기 수련회를 다녀와서 / 22

中國語文宣教會

선교의 때

안병국 (본 선교회 정간부 간사)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애 가운데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많은 시련과 고통을 겪으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안목으로 볼 때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어려운 순간을 쉽게 극복하실 수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 봅니다만 예수님께서 결국 십자가 위에서 죽음의 고통을 맞보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잘못이나 죄로 인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를 오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사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확장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손발에 찌힌 못자국의 아픔과 조롱의 비롱이 절정에 다다랐을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 절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아들이 아무 죄도 없이 처형을 당하면서 구원을 호소하는 순간까지도 침묵을 지키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침묵을 지키셨다고 하는 것은 결코 무관심하거나 외면하셨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는 십자가에서 신음하는 아들과 함께 고통을 나누었으며 누구보다도 안타까워 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를 오르실 때 지나가던 자들이 "성전을 헐고 사흘이면 다시 짓는다 단 자여, 네 목숨이나 건져라,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어서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아라" 라고 조롱할 때 역시 침묵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침묵은 결코 마귀의 권세와 당시의 종교지도자들의 음모에 굴복하신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을 지키신 것은 예수와 함께 모든 죄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전개되고 우리는 비로서 자유를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에는 깊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참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침묵 속에는 사탄의 계략을 극복하는 인내의 사랑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인간적인 눈으로 중국을 바라볼 때 선교의 문은 짙 닫혀 있는 것 같습니다. 공산당이 정권을 잡은 이래로 교회가 파괴되었고 많은 신자들이 순교와 박해를 받아 왔습니다. 폐쇄된 중국이 점차 개방되고 있는 현재에도 직접 선교를 하는 것은 아직 허락되지 않습니다. 많은 믿음의 형제들이 대륙선교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길은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대해 침묵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외면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며 아직도 우리들의 기도와 인내를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가라고 명하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롬8:26)”

(번역부 제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의 응답은 항상 우리의 생각 밖에서 온다. 우리가 인내를 구하면 하나님은 도리어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낳기』 때문이다. (롬 5:3)

우리가 순종을 구하면 하나님은 도리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어 우리로 『받은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게』 하신다. (히 5:8)

우리가 이기적이지 않기를 구하면 하나님은 도리어 우리에게 자기를 희생할 기회를 주시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며 형제를 위해 목숨을 버리게 하신다.

우리가 능력과 겸비함을 구하면 하나님은 도리어 우리에게 사탄의 괴롭힘을 주신다.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믿음을 더하시기를 구하면』 (눅 17:5) 하나님은 도리어 우리가 재산의 손실을 입고 병고통 겪으며, 실직하게 하시고 어려움을 만나게 하셔서 우리가 전보다 더욱 믿음을 사용하도록 우리를 내어모신다.

우리가 어린양의 생명을 구하면 하나님은 도리어 우리에게 낫디낫고 보잘것 없는 직업을 주셔서 짐박을 받게끔 하시니 이는 『그가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양처럼.....입을 열지 않으셨

기』 때문이다. (사 53:7)

우리가 은유를 구하면 하나님은 도리어 우리에게 염증을 일으키고 격노할 만한 많은 것들을 주신다.

우리가 안정됨을 구하면 하나님은 도리어 우리의 신경 한올한올을 곤두서게 하셔서 우리로 하나님 그분께 가서 안식을 찾아 구하게 하신다.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을 구하면 하나님은 도리어 우리를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 중에 두셔서, 그들로 우리의 신경을 자극하고 우리의 진실된 마음이 상처받게 하시니 이는 사랑은 오래참고, 사랑은 은유하며,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고, 사랑은 모든것을 참으며, 모든것을 믿으며 모든것을 바라며 모든것을 견디며, 사랑은 언제까지 떨어지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승리와 안식을 얻는 방법은 바로 직접 사랑하는 아버지의 손으로부터,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하나의 환경과 시련을 받아들여 그 가운데 나타나 얻게되는 유익을 받아 누리는데 있다.

<사막의 단상 中에서>

(原文)

五月十三日

我们本不晓得应当怎样祷告。(罗马书 8:26)

对于我们的祷告,神往往给予出乎意料之外的答复。我们求忍耐,神却给我们患难;因为“患难生忍耐。”(罗马书 5:3)

我们求顺服,神却给我们苦难,好叫我们“因所受的苦难学了顺从。”(希伯来书 5:8)

我们求不利己,神却给我们牺牲的机会,为别人舍命。

我们求能力和谦卑,神却要我们遭受撒但的迫害。

我们求主加增我们的信心,神却要我们伤财,害病,失业,以致我们更运用信心。

我们求羔羊的生命,神却给我们最卑微的事奉职位,因为“他象羔羊被牵到宰杀之地默然无声。”(以赛亚书 53:7)

我们求温柔,神却叫我们多遇见不平和讨厌的事情。

我们求安静,神却叫我们精神紧张,好叫我们在他那里寻着安息。

我们求爱心,神却把我们放在最不可爱的人中间,让他们刺激我们,伤痛我们赤热的心。因为爱是恒久忍耐,既有恩慈,又不求自己的益处,且不轻易发怒。爱是凡事包容,凡事相信,凡是盼望,凡事忍耐。爱是永不止息。

要战胜一切和得着真正的安息,你就要从天父手上接受他为你安排的每一个环境,和每一个试炼;从而享受互相效力的益处。

(「荒漠甘泉」中에서)

◇ 단어, 구문 설명 ◇

1. 捨命 shě mìng 목숨을 버린다. 목숨을 걸다.
2. 宰殺 zāi shā 가축을 잡다. 도살하다.
3. 惹厭 rě yàn 혐오감을 자아낸다.
= 惹嫌 rě xián
4. 刺傷 cì shāng 찔려서 상처를 입히다.
5. 赤心 chì xīn 진심. 丹心. 거짓없고 참된 마음.

◆ 번역·출판부 활동소식 ◆

계속적으로 《사막의 단샘; 荒漠甘泉》 목상 고재로 번역 공부를 하고 있다.

지난 두차례 모임이 부진하였지만, 수면회들 계기로 어떤 형태로든지 연락을 서로 취하며 모임을 계속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을 나누게 되었다. 그동안 소원하였던 회원들에게 적극적으로 연락하여 각 형편과 처지에 적합한대로 기도회 힘쓰고 모이기에 부지런한 회원으로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주부회원 중심의 낮모임과 직장인을 중심으로 한 저녁모임으로 나누어 실행하려 했으나, 변경하여 참여하기 힘든 회원을 기도회원으로 시간을 정하여 기도토씨 참여하게 하고, 그리고 다수가 모일 수 있는 시간을 합의할 것이다. 일단은 2·4週 목요일 저녁 7시로 정하여 개별적으로 연락을 취하였다. 번역·출판부의 스터디와 부서일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함께 할 수 있다.

◆ 세미나 안내 ◆

주제 : 중국 교회사 II

(1901 - 1949까지)

강사 : 王嗣岳 전도사(중화 한성교회)

일시 : 8월 27일(월요일) 오후 7시 - 9시

장소 : 중국어문선교회 사무실

중국기독교사 I

(당대부터 청말 카톨릭선교까지)

왕사악 전도사 (중화 한성교회)

1. 중국의 기독교사

복음의 중국 전입에 대하여는 여러 전설이 전해진다. 이것들은 어떠한 역사적 기록만 있거나 어떠한 책 또는 전설에 의하여 전해져 내려오는 것들이다. 기록이나 구설을 충분히 증명해 줄수 있는 근거들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전설이라고 한다.

중국의 복음전파에 관한 시기를 모두 AD 7C 이전으로 추정하나 자료와 증거의 불충분으로 여전히 가설로만 남겨져 있다. 중요한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 도마의 전입설

도마가 인도까지 와서 선교를 했다고 하는 설과 인도의 어떤 사원에 가면 도마의 유적이 있다는 설이 있으며 도마는 열정을 가지고 중국에 왔을 것이다.

인도의 마라바교회의 칼비안에 기도서가 있는데 이 기도문 안에 도마가 중국에 와서 선교했다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이 시기는 한나라 명세 때이다.

나. 바들로매의 전입설

바들로매는 인도까지 온 복음전도자 중 하나였으며, 중국에 도마와 함께 와서 선교했다는 설이 있다.

다. 펄박발은 기독교인의 전입설

「燕京開教略」이라는 책안에 주후 65년경 기독교도들이 로마 네로의 박해를 받아 예루살렘을 떠나 동쪽으로 이동하

던 끝에 중국에 들어왔다는 기록이 있다. 그러나 이 기록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는 하나도 없고 펄박발았다는 유물도 없다.

리. 수리아선교사의 전입설

「中國史略」라는 책 안에 기록되었으며 東漢시대에 수리아선교사 2명이 중국에 왔다고 하는데, 이 두사람은 다른 직업(실크를 제공하는 수입상)으로 중국에 왔으나 본뜻은 선교를 하러 왔다는 설이 있다.

위의 4가지 설들은 정확한 자료와 유적, 유물이 없기 때문에 단지 설로서만 인정하고 있다. 만약에 수리아선교사가 중국에 들어왔음을 뒷받침하는 유물만이라도 발견되었다면 중국의 기독교역사는 더 앞당겨질 것이다.

정확한 자료와 유적, 유물이 있어서 확인할 수 있는 복음전입의 시작은 당나라 때 부터이다. 이것은 명나라 천제년간(AD 1623 또는 1625)에 西安부근에서 발견한 “大秦景教流行中國碑”가 발견된 후에 확실한 역사로 자리잡게 되었다.

2. 당나라의 경교(景教)

가. 역사

「大秦景教流行中國碑」의 비석으로 그 안에는 비문이 있다.

비문 안의 앞에는 중국어로 되어있고, 옆에는 수리아어의 이름으로 되어

있다. 비문에 보면 복음이라는 경교가 들어왔다는 사실들이 잘 나타나 있다. 원래는 당나라 역사지인 당폐이오에 경교가 있나라는 것만 밝혀졌고, 당나라의 여러가지 역사책에 단지 경교라는 이름만 있었지 어떤 유물이 없었는데 바로 이 流行碑가 발견됨으로 말미암아 경교의 존재가 확인된 것이다.

유행비문에 보면 정확한 날짜가 있는데 당태종 정관 5년(AD 635년)에 페르시아의 선교사인 알로펜(Alopen) 일행이 중국에 들어왔다고 되어있다. 이 당시 당나라는 종교와 문화에 대해 개방적이어서 당나라때 찬란한 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었던 것도 정부의 태도 때문이었다. 어떠한 종교(불교, 도교, 배화교 등등)도 받아들였으므로 황실의 보호를 받으며 전도활동을 할 수 있었다. 武宗 때에 이르러서는 도교를 국교로 함으로 그 당시 불교, 경교를 탄압하기 시작하였다. 무종이 일년 후에 사망하고, 다음 황제가 즉위한 후 불교와 경교를 다시 개방하여 놓았는데 불교는 계속 성장을 했으나, 경교는 탄압으로 인해 완전히 없어졌다. 그중 일부 신도는 핍박으로 인해 변방지역으로 대피하였고 그 후에 페르시아에서도 선교사를 보내지 않아 경교는 종적을 감추었다.

경교의 근거는 경교비와 돈황석실에서 발견된 경교에 관한 서적 8권이다. 이것을 근거로 당나라의 경교를 엮어나 갔다.

당나라때 들어온 선교사들은 종교가 개방됨으로 초기 경교의 전파를 별무리가 없이 잘 진행하였다.

경교비문 중에서 「法流十道, ... 寺滿百城...」라는 귀절이 있는데 이 뜻은 “경교의 진리가 10도에 퍼져서 경교사원이 모든 성에 다 충만되어 있다.” 라는 말이다. 당시에 불교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경교를 믿었다는 것이 역사적 기록으로 판명되었다.

나. 선교방법

(1) 의료선교

「舊唐書」라는 책에 보면 당시 경교선교사들이 들어와 의료 선교를 했다는 기록(의술을 배풀었다)이 있으며, 페르시아에 의술을 가지고 와서 많은 신도를 확보하는데 썼다는 기록이 있다.

(2) 사회사업

불우한 자, 비고픈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했다.

“오는 사람마다 밥을 주고, 굶픈 사람에게 돈을 주고, 옷이 없는 사람에게서는 옷을 주고, 병든 사람에게서는 치료를 해주고” 라는 말이 경교비문 안에 기록되어 있다.

(3) 선교할 때 토착성을 강조

경교비문을 읽어보거나 경교의 문서를 읽어보면, 이것이 기독교인지 아니면 불교인지 또는 도교인지를 잘 모를 때가 많이 있는데 이들이 너무나 토착적인 당시의 종교용어를 많이 사용했기 때문이다.

예를들어 聖靈을 가리킬때 玄風, 元風이라고 쓰며, 예수그리스도를 가리킬 때는 元邊, 석가모니는 石世尊, 성직자(선교사, 신부, 목사)는 僧, 사탄은 沙單, 유명한 성직자는 法王으로 쓴다.

경교를 연구할 때 이단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이라든지 예수그리스도를 설명할 때 그 당시에 쓰이는 용어들을 사용했으므로 이단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지금 우리의 기준으로는 문제가 되지만 그 당시 상황으로 비추어 볼 때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경교비문을 읽어보면 완전한 기독교의 진리가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어 창조론(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기록, 만물을 창조한 후에 인간을 창조했다는 기록), 인간이 잘못해서 타락했다 - 사탄의 유혹을 받아 타락했다 - 는 타락론이 있고, 타락한 후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했기 때문에 구원하셨고 - 자기의 아들인 예수그리스도를 성육신시켜 사람을 구했다 - , 동정녀 탄생, 동방박사, 예수그리스도의 승천, 신약성서가 27권이 있다는 것, 사도가 복음 전하는 것, 일주일에 한번씩 예배드리는 것 등이 경교의 비문안에 기록되어 있다.

경교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번째 부분은 기독교 교리에 대한 분석내용이며, 뒤의 부분은 경교가 중국에 들어온 후에 전파된 경위를 이야기하고 있다.

경교비문에 있는 교리적인 부분을 잘 분석해 보면 이단성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은 하나도 없다. 그래서 경교가 이단이다라고 말할 수 없다.

돈황석실에서 발견된 많은 교리문답집을 보면 삼위일체나 창조론 등이 완전히 똑같다. 불교에서 말하고 있는 창조론, 윤회설이 교리안에 포함되어 있지않고 단지 당시에 쓰던 불교적 용어만 사용되고 있을 뿐이다.

(4) 고위관직자를 주 대상으로 선교 유명한 대신들, 제상들(郭子儀), 문관, 무관들의 이름이 경교비문안에 기록되어 있다.

다. 특징과 쇠퇴원인

(1) 특징

경교비의 내용으로 그들은 온전한 신앙교리를 갖추고 있으며 토착성이 매우 강하다.

(2) 쇠퇴원인

우선 핍박으로 인하여 위축되고 도주, 신앙포기 등의 사례가 있다.

또 너무나 왕실과 고위관직 위주의 선교로 일반대중에 널리 전파되지 못했다. 비록 法流十道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널리 전파되고 있지 않다. 만약 전파가 되었다면 많은 전파된 기록이 있어야 하는데 기록이 없다.

그밖에 중국인 사역자가 배출되지 않았고 경교의 복색이 유교, 불교보다 강조되지 못했다. 결국 자체적으로 약한 경교는 정부의 탄압으로 말미암아 사라졌다.

3. 원나라의 엘리케온교(也里可温教)

엘리케온교는 중국의 역사서 안에 수록되어 있다.

「엘리케온」은 몽고어 Arkaun으로 “복있는자”, “연복있는자”의 의미이며 원나라의 기독교를 통칭한다. 당나라의 멸망과 더불어 경교도 사라졌지만 중국의 변방쪽으로 도주한 신자들이 계속 신앙을 지켰다. 심지어는 오늘날의 소련지역에 경교신자가 있다는 주장을 펼 수 있는 것은 그 지역에 경교신자의 墓石, 墓碑의 십자가 조각, 그리고 수리아문자의 세례명, 교직명의 발견으로 입증되었다.

원나라에 바로 이 경교가 다시 부활하게 된 것은 몽고족의 중국 입경으로 경교신자가 더불어왔고, 또 왕실친족 가운데 경교신자가 많았기 때문이었다. 더욱 원나라 조정은 종교신앙에 대해 자유방임적 자세여서 경교의 전파가 유리하였다.

가. 경교의 전파

문헌의 기록을 통해 원나라의 경교 예배당이 전국 47개 지역에 설치되었고 특히 華南일대에는 7곳의 예배당이 설치되어 신자가 많았음을 알 수가 있다. 그러나 원나라의 쇠퇴와 더불어 경교도 쇠퇴되었고 이젠 경교의 형체가 완전히 사라졌다.

나. 쇠퇴원인

(1) 경교가 당시 대다수의 漢人보다는 몽고인과 色目人(西洋人)에게 信奉되어 漢人은 경교를 외래 종교로 간주했다.

(2) 원나라 멸망후 명나라의 건립시 경교의 신봉인 色目人の 漢化가 신앙포기를 초래했다.

(3) 원나라 경교신도의 도덕적 타락이다.

(4) 원나라때 장기적 경교의 선교 전략과 제자양성, 성경번역의 결핍이 있었고 여전히 수리아어 성경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다. 로마카톨릭의 중국 전입

원나라때 로마 카톨릭교황 Innocent IV는 Carpini를 북사자격으로 중국에 보내 원의 서방공격을 억제토록 요구했으며, 그후 John of Montecorvino(프란치스코회)가 元 世祖때인 1294년에 중국에 도착해 본격적 선교사업을 전개하기 시작해서 1305년에는 6천명의 세례자를 내게 했고, 北京에는 성당도 셋이나 세웠다. 그가 죽은 후 비록 후임자가 왔으나, 얼마 못가 2명은 죽고 1명은 다시 유럽으로 돌아갔다. 비록 천주교가 들어왔으나 Montecorvino가 죽으므로 명맥이 끊어진 이유는, 첫째는 후계자들이 유럽을 잘 받들지 못했으며, 둘째는 천주교 신자가 읽을 경전이 없어 뿌리깊은 신앙을 소유하지 못했다. 당시 천주교 신자들이 非漢人 위주였다는 것과, 성경의 번역, 제자양성의 결핍을 또한 들 수 있다. 셋째로는 당시 유럽은 1349년 전후에 전염병으로 사회전반이 무기력해 갔으며, 다시 중국에 와서 선교할 여유를 갖지 못했다.

4. 명, 청나라의 천주교

명나라가 세워진 후 13대 임금인 태조 주원장은 대외 쇄국정책을 펴서 과거

시대처럼 외국과의 교류가 빈번하지 못했고 봉제가 심했다. 전반적으로 명나라시기는 「海禁政策」을 폈으며, 내지에 외국인의 출입이 금지되었다.

가. 천주교의 전파

1551년 Francis Xavier 신부가 중국 上川島에 도착, 황제를 알현하려 했으나 뜻을 못이루고 1551년에 홀로 上川島에서 숨졌다. 1578년 이테리 신부 Valignani(范禮安)이 마카오에 도착한 후 중국의 문이 굳게 닫힌 것을 보고 한탄하여 “바위야! 바위야! 너는 언제 깨어질 것인가?”라고 외쳤다.

1579년 Michel Ruggieri(羅拜堅) 신부, 1581년 Matteo Ricci(利瑪竇) 신부가 마카오에 도착하여 중국에 들어가려고 하였으며, 1582년 Ruggieri는 동료 Francisco Pasio 신부와 廣東의 肇慶에 들어갔으며, 총독의 허락으로 韶州에 성당 건립이 추진되었고 결국 1590년 명나라 최초의 성당이 건축 완공되었다.

Ricci는 그의 선교지역을 점차 황제가 있는 北京쪽으로 이동(교회가 점차 위로 올라감)하여 1601년 1월에는 북경에서 전도하게 되었고 1610년 죽을 때까지 북경에 있었다. 1642년 명나라 멸망 직전 북경에서 세례를 받은 신도가 254명이고, 1643년 전국에서 세례가 4824회가 거행되었으며, 13개성이 개방되어 전도하게 되어서 전국에 신자가 15 ~ 26만에 달했다. 그중 왕실비빈, 사대부, 진사, 지식인, 상인 등 글고루 신도들이 확보되었다.

명나라 멸망 후에도 청은 천주교를 禁하지 않았고, 더욱 신부인 독일의 J. Adam Shall Von Bell(湯若望)을 欽天監正(국립전문대장)에 임명하여 重用했다. 그러나 康熙 황제때 로마교황과의 禮典문제로 康熙帝의 진노를 사 1715년 천주교의 禁敎를 下諭했다. 그후 雍

정황제가 즉위한 후, 즉 雍正元年(1723년)에는 공식적으로 천주교에서 가지고 있는 기술에 대해서 禁教조치를 내렸다.

나. 예수회(Jesuit)의 선교방법

- (1) 독서인, 사대부를 우선 전도대상자로 삼았다.
- (2) 수도인 북경의 지위를 중시하여 점차 선교지를 북쪽으로 이동했다.
- (3) 동서문화교류가 제일 활발했을 때 기하학, 서예학, 대포 만드는 기술 등으로 전도의 매개체로 삼아 선교활동을 하였다.
- (4) 고위층을 만날때 꼭 예물을 선물로 드렸다.
- (5) 선교를 위해 중국문화와의 마찰을 극소화시키며 중국인들이 기독교에 대해 이질감을 느끼지 않도록 모든 방법을 동원 적응주의를 채택했다.

※전도(선교)할 때 꼭 필요한 사항

㉠ 제자양성

- ㉡ 중국에 나름대로의 문서가 없으므로 문서로 전도활동
- ㉢ 중국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토착화된 방법과 우회된 방법으로 전도
- ㉣ 자체의 문제와 내부의 알력과 싸움 등으로 인하여 금지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선교하는데 있어서 협력을 해야한다.

다. 禮典, 禮儀 문제

초기 예수회 신부 특히 Ricci는 천주교와 중국문화와의 융합, 상호보완이 된다고 생각하였고, 특히 하나님의 명칭을 중국 고전에서 찾아 「上帝」, 「天」으로 불렀다. Ricci가 세상에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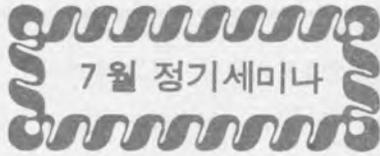
을 때는 별무리없이 사용되다가 Ricci가 죽은 후 하나님의 명칭을 비롯한 조상에 대한 제사문제, 공자에 대한 제례등이 다른 선교사들에 의해 재론되어 결국 교황청에까지 이 문제 해결을 위한 논쟁이 벌어졌다. 그후 교황청이 심사 숙고한 후 여러 제례와 예식 그리고 하나님 명칭에 대한 「上帝」의 禁用이 당시 예수회 신부와 황제인 康熙帝에까지 격한 反論과 저항을 낳았다. 중국황제는 교황청의 禁止 조치는 중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중국을 너무 모른다하여 이럴 바에는 禁止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다고 下諭(“서양인들은 중국고전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면서 ~ 이후에 선교인들이 중국에 대해 논하는 것을 금한다.”)했고, 교황청도 이에 대해 평배히 맞섰다. 중국측은 1723년 정식으로 금지조치를 취했고, 교황청은 1775년 예수회를 해산시켰으며 중국 교구를 아예 없애버렸으므로 이후 1842년까지 기독교(천주교)에 대한 흔적이 없다.

다윗의 시편묵상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

여호와께서 내게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실지라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시편 138:8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은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다윗은 주께서 나의 목적을 이루실 것이라 말하지 않고 나를 향하신 그의 목적이 이루어지리라고 말합니다.



중국기독교사 II

(1807 ~ 1900)

왕사악 전도사 (중화 한성교회)

I. 개신교의 중국전파

1. 남경조약 이전의 활동 (1807-1842)

최초의 개신교선교사 모리슨(R. Morrison)은 1807년 중국에 선교목적으로 왔다. 그러나 그가 받을 달았던 清朝는 외국에 대해 쇄국정책을 폈기 때문에 외국인의 중국상륙이 불가능하였다. 그는 이런 현실속에서 마카오에서만 선교활동을 할 수 밖에 없었고 그 후 현재 싱가포르의 말라카(Malacca)에서 선교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는 평생 마카오와 동남아시아를 주무대로 활동하였으며 그가 생을 마감(1834년 사망)할 때까지 중국내륙에서의 복음전도는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모리슨 이외에도 미국, 독일측 선교사도 중국에 선교하려 왔는데 그들이 당한 현실은 모리슨과 같은 것이었다. 1842년 이전에 중국선교를 하기위해 도착한 선교사들은 주로 영, 미 계통이며 약 20명이 마카오, 동남아시아 및 제한적이지만 홍콩, 廣州에서 활동

하였다. 그들의 주요사역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었다.

1) 성서번역—1810년 사도행전 번역, 1813년 신약, 1823년 신구약 합일 번역

2) 서양식 학교의 설립—1820년 모리슨이 말라카(Malacca)에서 英華書院(Anglo-Chinese College)설립, 중국인 학생이 수업받음. 중국인 최초의 유학생 나옴 - 영,미로 재유학.

3)문서사역의 시작—英華書院에 인쇄소를 설치하여 전도용책자, 전도지를 발간. 인쇄공 梁發은 최초의 중국인 목사가 됨. 太平天國亂의 주동자였던 洪秀全이 이책자를 읽고 그의 개혁사상으로 수용하였다.

4) 사전의 편찬—모리슨은 1815년 《華英字典》1권을 출간, 1823년 전3권 완간됨. 이텔(J.Eitel)목사는 《廣州方言字典》, 레흐러(R.Lechler)목사는 《潮語德華字典》, 《客語德華字典》편찬

5) 의료선교의 시작—최초 의료

선교사 파커(P.Parker 증,미협정 주선)가 1835년 廣州에서 新豆欄醫局을 개원하여 주로 眼疾위주의 환자를 치료함.

6)정기간행물 및 서적의 출간—
1815년 최초의 중국어 정기간행물인 《察世俗每月統計傳》출간. 선교사 구츠라프는 중국에 관한 책 저술

2. 남경조약 체결이후 의화단사건까지(1842~1900)

南京條約의 체결로 외국인이 중국의 5개항에 들어가 가옥임대, 병원 및 예배당 설치가 조약에 의해 가능하게 되었다.

이조약은 선교를 하는데도 획기적 사건이 아닐수 없다. 그 후 동남아에서 활동하던 선교사와 이 소식을 들은 선교사 지망생이 속속 중국에 들어오기 시작하였다. 1858년의 천진조약, 1860년의 북경조약으로 외국인은 이제 중국의 내륙 양자강까지 들어오게 되었으며 이제 전 중국내륙이 선교사들의 선교대상 지역이 되었다. 이들 선교사들이 중국에 들어와서 선교를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나타난다.

중국에서 언어, 풍속 등 공부→ 천도여행을 통한 책자배포, 순회전도 및 설교→ 좋은 지역을 선정하여 가옥을 임대, 근거지를 확보→ 선교기지로 확대시킴. 그곳에 병원, 학교를 설립-

선교고구(총본부)로 확장 선교사역이 발전됨. 즉 “근거지—>기지—>고구(총본부)”의 형태로 조직으로 확대되었다.

중국에 온 서양선교사는 그들이 채택한 선교방식에 따라 두 가지 타입의 선교사로 나눌 수가 있었다. 즉 직접전도(Direct Evangelism)와 간접전도(Indirect Evangelism)이다. 직접전도란 중국인들을 직접상대하여 말로써 또는 책자배포를 통해 복음의 내용을 직접 전하는 것이며, 간접전도란 교육, 의료, 자선, 구제 등의 사업을 통해 복음의 내용을 간접적으로 우회하여 전하는 것을 말한다. 직접전도의 대표적 인물은 허드슨 테일러이며 간접선교의 대표적인 인물로 티모시 리차드(Timothy Richard)이다. 이들은 비록 선교방법에는 입장을 달리하고 있으나 모두 선교현장에서 “어떻게 해야 중국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각기 다른 접근방법을 찾고 있었던 것이다. 또 이 두 노선은 당시 제한된 시간과 재원에서 취한 선교사들의 노선적 선택이며 우선순위의 선택이기도 하였다. 당시 1천여명의 선교사 가운데 여전히 직접전도 노선의 선교사가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청말 선교사들의 선교사역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었다 즉 선교는 그 소

명과 방식, 결과는 비록 서로 달랐으나,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달한 트라는 점에서 동일한 헌신이자 소명으로 볼 수 있다.

1) 전도, 교회개척사역—각 선교 단계에서 가장 주력한 사역으로 주로 중국인의 중하류 계층에게만 제한될 수 밖에 없는 전도사역이었다. 허드슨 테일러의 중국내지회(China Inland Mission)가 대표적 활동을 전개하였다.

2) 교육사업—서양식교육의 중국 도입. 주로 본토전도인과 신도자녀에게 교육을 제공하였다. 1896년에 308개 학교에서 교육받는 학생은 6789명이었다.

3) 의료사업—1889년 전국 61개 기독교병원, 44개 약국이 있었다.

4) 자선사업—육아원, 아편퇴치운동, 전족퇴치운동을 벌였다.

5) 구황활동—1876년~79년 華北 지역 가뭄때 선교사들이 적극적으로 구황사업을 전개하였다.

6) 출판사업—廣學會를 통한 서적의 출판, 간행물 《英國公報》 발행하였으며 이것들은 중국사대부의 개혁사상에 영향을 주었을 뿐 아니라 중국이 근대화하는데 있어 공헌을 하였다. (중국 근대 사상가중 康有爲, 梁啓初, 孫文 등의 개혁사상가들에게 영향을 주었다.)

1842년부터 시작된 중국내륙선교는

서구열강의 정치적, 외교적, 경제적 배경을 힘입고 전개되었다. 이들의 선교는 몇가지 문제점과 과제들을 포함하고 있었다. 첫째, 선교가 조약에 의해 시작되었으며 서구열강의 배경을 지니고 있었다. 둘째, 선교사역이 (비록 1900년까지 짧은 58년간이긴 하지만) 주로 중국의 沿海위주 특히 東南 연해지역에 집중되어 있었다. 셋째, 선교사들은 문화적 우월감이 너무 강하여 고자세로 중국을 계몽시킨다는 자세가 팽배하여 중국인의 비위를 건드렸다. 넷째, 각 종파교단의 협력 선교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교파주의의 확장이 강하여 한지역에 여러종파의 교회가 불필요하게 있을 뿐아니라 교회가 난립되어 지역분포가 골고루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다섯째, 중국인에 의한 토착적 자립적 교회의 설립이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며(시기의 짧음에도 있겠다) 계속 소양선교본부의 의존적인 교회의 모습이었다. 여섯째, 기독교선교의 대상이 당시 중국을 이끌어갈 중요한 계층인 관료, 신사, 지식인 등의 상류계층에게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또 그들을 대상으로 선교하는 자도 극히 드물었다.

II. 19세기의 반기독교

개신교의 중국선교는 그 뒤에 강

력한 서양열강의 세력이 있었다. 기독교의 내륙선교는 中英天津條約 제10조에 의해서 가능하였고 선교사와 중국 신자의 보호는 中英天津條約 제8조에 의해서였다. 또 과거(明清시기)의 천주교성당에 대한 반환과 내륙각지에서 땅의 임대와 매입이 中佛北京條約 제6조에 의해서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기독교가 중국에 전파되면서 상대적으로 선교사들과 비신자 중국인과의 갈등과 적대관계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당시 선교사의 발이 닿는 지역에서 거의 教案(종교사건)이 발생하였다. 교안은 기독교선교에서도 중요한 문제이지만 중국측에서 볼때에도 중국이 외국으로부터 받는 심한 타격이 아닐 수 없다. 즉 교안이 발생하면 우선 외국선교사와 중국교인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가 가고 그 후 서구열강은 “條約”에서의 “선교권”을 보호한다는 명목아래 정치적, 군사적 제재를 가하게 되었다. 결국 중국인과 선교사와의 관계는 악순환으로 지속이 되었다.(천주교의 경우는 보다 심각하였다)

중국인의 반기독교 원인은 복잡하며 여러 이해관계가 또한 복잡하게 뒤섞여있다. 19세기의 수많은 반기독교사건과 교안은 표면적으로 수많은 중국 백성이 참여하고 있지만 실제의 책동과 계획은 소수의 관료와 신사와 지식인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결국

이들 관신의 “기독교관”이 교안을 이해하는데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다.

첫째, 선교사의 선교목적에 대해 그들은 다른 뜻이 있어 열강과 침략행위를 동일시하여 종교로 중국백성을 와해시켜 중국을 잠식시키려 하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둘째,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관신들은 유교적 전통에 입각한 人本主義와 倫理精神으로 비판하였다. 셋째, 기독교를 믿는 것에 대해서도 불필요하며 배척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관신들의 반기독교방법에 있어 그들은 우선 선교사의 入境과 居住를 못하게 하였다. 관신들은 布教와 公檄文을 붙여 백성들에게는 협조와 단절을 구하였고 선교사들에게 出境을 경고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여러 유언비어들이 섞인 글과 행동으로 기독교의 入教를 금하였다. 마지막으로 (앞의 두 방법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실력대항을 통해 선교사들 축출시키는 것이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중국관신들의 반기독교적 이유는 관신들의 기독교관에 입각하기 보다는 “현실적 이익의 감소”와 “세력의 약화”에 의해서였다.

중국인이 일단 기독교에 입교한다는 것은 종교적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의미와 집단공동체적

의미도 함께 있었다. 우선 중국인이 입교할 경우 전통적 禮法鄉禮는 더 이상 그들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둘째, 지역적인 迎神賽會(神明에게 제사나 굿)에 참여치 않으므로 부과되는 납부금을 내지 않아도 되며, 여러 공공의 무도 때에 따라 면제되었다. (이런 사무는 신사층에서 주관한다). 셋째, 신사계층의 부당한 착취와 겪는 억울함을 당하지 않아도 되며 선교사들이 그들을 대신해서 여러일을 처리해줄 수 있었다. 결국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脫紳士支配를 의미하게 되며 이것은 신사층의 이익감소를 초래하게 된다. 중국의 관신들은 그들의 “기독교관”에 입각하여 기독교를 반대하지만 선교사와의 이해충돌에 의해서도 많이 좌우가 된다고 하겠다.

교안발생은 중국인의 책임 뿐만 아니라 서양선교사의 책임도 있었다. (교안 발생시 領使에게로 통보하고 넘김.) 첫째, 서양선교사(천주교선교사)가 옛 천주교 성당의 반환분규로 교안이 일어났었다. 둘째, 선교사들이 教民의 소송사건에 관여를 하여 원래 단순한 사건도 거대화되어 非教民의 불만을 자아내어 교안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교안이 발생하면 보통 다음과 같은 순서로 사건처리가 진행되었다. 교안발생—>선교사지방행정부, 합당지역영사

에게 항의 보고—>영사가 수사를 착수, 사건심각시 住北京大使에게 보고 지방관은 하급관리에게 총리아문에서는 영사(또는 대사)는 조약에 지시하여 외국영사가—>지방관에게 <—의 거해서 사건처리요구 원하는 대로 좋게 타결되도록 지시 총리아문에 보고, 항의, 사건해결 귀결됨 清末에 바로 이러한 교안으로 선교사는 물론이요 중국측에게도 큰 피해를 남게 하였다. 선교사측에서는 생명과 재산이 상실되었으며 중국측에서는 교안주동자에 대한 사형, 관련자처벌, 배상금지불을 당하게 되었다. 사건이 심할 경우 교안으로 중국이 국가적 손실을 당하게 되었다. 1897년 독일은 山東에서 두명의 독일선교사가 피살되었다는 이유로 군대를 출동시켜 膠州灣을 強占하였다. (曹州教案) 결국 중국은 “선교사—>교안—>제국주의 대두—>제국주의 세력확장”의 도식을 생각하게 되며 이것은 기독교선교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다. 기독교는 비록 조약문에 의거하여 선교가 가능하였지만 그 불평등조약의 짐은 선교사의 십자가로 늘 지고 다니면서 선교를 해야하였다.



중국 루터교 禮賢會의 기초를 세운 사람

王元深 (1817~1914)

廣東省 東莞縣



王元深은 廣東省 東莞縣의 官桶 鄉사람이다. 道光 21년(1847) 그가 31세 되었을 때 기독교의 세례를 받고 곧 선교사역을 시작하였다. 그는 루터교에 소속된 초기의 몇분 안되는 중국 국적을 가진 선교사 중의 한 분으로 루터교의 廣東省선교사역에 큰 공헌을 한 개척자 중의 하나이다.

王元深은 清 嘉慶 22년(1817)에 태어나 어렸을 때 아버지를 여읜 뒤 집안이 가난하여 작은 할아버지의 집에서 자라났다. 그는 私塾의 교육을 겨우 1년밖에 받지 못했다. 16세 때 (1832)작은 할아버지가 歸善(지금의 惠陽)의 揔山墟지방으로 이사가게 되자 작은 할아버지와 함께 가서 장사를 배우고 다시 글공부를 하기도 했다. 道光17년(1837) 王元深은 사람들과 합자하여 揔山墟에서 張東興이라는 상호로 털실과 포목장사를 시작하였는데 장사가 매우 잘 되었다.

道光 21년(1841) 25세 되었을 때 그는 譚씨와 결혼하였고 2년후(1843) 장남 煥初를 얻었다. 4년 후(1847)에는 차남 謙如를 얻었으며 두 아들은 모두 나중에 교회사역에 헌신하여 목사가 되었다. 루터교에 소속된 父子 세 사람은 모두 교회에서 공히 아주 높은 명성을 누렸다.

道光 22년(1842) 중국과 영국 간에 아편전쟁이 끝나고 쌍방간에 남경 조약이 체결되어 5개항의 통상항구가 개방되었다. 이로부터 값이 싸고 질이 좋은 방직공장 제품이 중국에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고 서양 직물이 중국 시장을 가득 채웠다. 王元深 등이 경영하는 포목점도 이로 인하여 시세가 없게 되고 적자를 보게 되었다. 王元深은 이 때문에 장사를 그만두어야만 했고 달리 가족을 부양할 방법을 모색해야만 했다.

道光 25년(1845), 친구 唐盛種의

소개로 홀로 홍콩의 上環大街의 泰安號라는 硫黃가게에 가서 일하였다. 당시에 이 거리에는 眞神堂이라는 교회가 있었으며 매일밤 예수의 도리를 설교했다. 王元深도 한가할 때는 그곳에 가서 우상에게 절하지 말고 조상을 숭배하지 말며, 인습을 타파하라고 사람들에게 권하는 소리를 경청하였다. 그러나 이전 이야기들을 異端邪說로 생각하고는 믿을 만한 가치가 없다고 여겼다. 王元深이 유황가게에서 일한 지 이태가 되었을 때 이 가게마저 장사가 잘 안되어 쉬게 되었다. 王元深은 그의 좋은 친구 吳振揚의 집에 가서 몸을 기탁하여 잠시 머물렀다.

어느날 王元深은 우연히 이미 기독교를 믿는 친구 劉甲을 만나게 되었는데 劉君은 그와 이야기하던 중에 예수의 복음을 전해주면서 王元深에게 예수믿기를 권했다. 그는 또 그에게 구즈라프(Karl F.A.C Gutzlaff 1803~1851)문하에 가서 배울 것을 권했다. 구즈라프는 유럽지역에서 중국에 선교하러 온 최초의 선교목사이며 루터교 교회에서 최초로 중국에 파송한 목사이다. 그는 중국어를 유창하게 할 수 있었다. 王元深은 구즈라프를 만나보고 나서 그가 온화하고 선하다고 느꼈고 이때부터 매일 시간을 정하여 진리의 말씀을 배웠다. 처음에는 예수교 교리에 대해서 이해가 깊지 않았으나

나중에는 점차 偶像이나 가짜신과 참신인 하나님과의 차이와 죄의 두려운 결과를 알 수 있게 되었고 이로부터 말씀을 믿고 선교하기로 결심하고 구즈라프에게 세례를 배풀어 주기를 구했는데 그 때 그의 나이는 31세였다.

王元深은 처음에는 구즈라프를 따라서 홍콩에서 선교하였으나 나중에는 광둥 각지로 가서 성경을 배포하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루터회 산하인 巴冕會(지금의 禮賢會)에서는 게나르(葉納育; Ferdinand Genahr)를 중국에 보내어 본격적으로 선교를 시작했는데 구즈라프는 王元深에게 葉목사를 돕도록 했다. 王元深은 이때부터 禮賢會에서 일하게 되었고 게나르와 각지로 다니면서 성경을 배포하고 醫術을 배풀며 전도하였다. 그들의 발자취는 광둥성 전역에 두루 미쳤다. 항상 마을사람들의 돌과 가래침세례를 받으며 육을 떠는 험난한 여정이었으나 그의 선교열망은 조금도 식어질 줄 모르고 30여년간을 충성스럽게 사역하다가 光緒 6년(1880년)에 고령으로 은퇴하였다.

王元深은 禮賢會를 세운 원로 중의 하나로 언어구사력이 뛰어났다. 禮賢母會에서는 그를 안수하여 목사로 세울 의향이 있었으나 王元深이 극구 사양하여 일생을 평신도로 보냈는데 비록 목사라는 직함은 없었지만 오히려 실질적으로는 목사의 역할을 수행

하여 은퇴 후에도 전도를 게을리하지 않았다. 믿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은근하게 가르쳤으며 이미 믿은 자들에 대해서는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권면했다. 그는 비록 교육은 별로 받지 않았으나 여러가지 저술이 있다. 그의 저술은 교회와 말씀을 보호하고 교의를 선양하며 미신을 타파하는 내용으로 조리가 있었다. 그의 글은 설득력이 있었는데 그 중 「聖道東來考」 「歷艱明證」(자서전)의 두 책은 중국 기독교사상의 귀중한 자료이다.

王元深은 98세까지 장수한 후 민국 3년(1914) 하나님의 품에 안겼으며 홍봉 薄扶林 기독교 묘지에 안장되었다. 그의 일생을 종합해 보면 비록 뒤늦게 중년이 되어서야 복음을 믿었으나 신앙의 신실함과 기도생활은 후세의 신도들에게 모범이 되었다. 고서에서 이르는 “쌍인 것이 많으면 자연히 빛이 난다.”는 말은 곧 그의 경우에 부합되며 王元深을 기리는 최고의 찬사 중의 하나이기도 하다.

[中國 基督教 人物 小傳 上卷 출전]



시

예수님의



송명희

예수님의 머리에 있는 가시관은
우리의 찢림이었고
예수님의 맞으신 채찍은
우리에게 있을 징벌이었으며
예수님의 받으신 고난은
우리의 당할 아픔이었으며
예수님의 모든 수치는
우리의 영원한 부끄러움이었고
예수님의 고통 중에 있는 눈물은
우리의 슬픔이 끝없이 되어
흘러 넘침이었네
우리의 무한한 죄 때문에
예수님의 피 흘리심이 있었고
우리의 더러운 불법이
예수님의 무거운 십자가가 되었으나
우리는 예수님을 위하여
하는 일이 없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위하여
죽을 수 있는 사랑이 있는가

그가 찢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사53:5)

중국의 종교자유를 분석함

時代論壇 第 138 期 1990 年 4 月 22 日

梁 鑑 洪

최 근 중국 광주에서는 종교계인 사들을 놀라게 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일찌기 체포당했으나 신앙을 굳건히 지켰으며 출옥 후에도 여전히 전도자로 사역하고 있는 복음의 용사인 大馬站교회의 전도자 林獻羔가 또다시 체포를 당한 것이다. 다행히도 체포당한지 얼마 안되어(23시간:역주) 풀려 나긴 했지만 중공의 일관된 자세로 보아 林獻羔는 계속 감시당하고 있음이 틀림없다.

중국대륙에서는 林獻羔事件과 같은 것이 결코 유일무이한 사건이라 볼 수 없다. 중공이 교회나 신도를 핍박한다는 것은 가끔 들을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교회의 충격을 준 사건이라도 신문지상에 보도될 때는 이미 시간과 사람의 여과를 거친 뒤이기 때문에 눈에 띄지 않는 1단기사정도에 불과하여 결코 기독교인이나 다른 사람들의 주의를 끌지 못한다.

최근에는 중공이 바티칸을 비난하

고 9명의 주교와 30명의 사제들 구속한 소식이 전해진다. 이와 동시에 중국국무원 종교사무국의 극장 任務之는 홍콩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이 사건을 부인했다. 그러나 아니면 글썽에서 연기가 날리는 없고 원인이 없는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 우리는 상황이 어떤지 살펴야 하며 또한 그 변화를 조용히 관찰하여야 한다.

林獻羔事件은 홍콩 종교계인사의 적지 않은 반발을 불러일으켜 任務之가 홍콩을 방문했을 때 천주교와 기독교 단체가 침묵연좌시위를 하였고 항의서한도 전달했다. 어떤 이는 중공이 任獻羔 및 다른 종교성직자를 체포한 것은 중국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하였다. 왜냐하면 중국의 헌법에는 종교의 자유가 명백히 기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1997년이 이미 눈앞에 다쳐온 홍콩의 향후 종교자유문제는 홍콩의 각 종파는 물론 각 종교의 신도들의 공통 관심사이다. 옛것을 살펴서 새것을 알

게 되듯이 중국대륙의 종교자유에 대한 우리의 인식은 신도들이 앞으로 계속 살아남을 수 있을지의 여부를 판단하는데 도움을 준다.

중공이 대륙을 차지한 초기에 많은 종교계인사들이 周恩來의 초청을 받아 周恩來가 베푼 연회에 참석했는데 당시 周恩來는 공산주의국가에도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설명하였다. 예석하게도 그 후 교회는 점점 통제되고 기타 종교들의 사찰들도 역시 그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심지어 문혁기간에는 민간의 제사나 분향 등의 풍습마저도 미신이라 하여 금지당했다. 그러다가 개방정책 이래로 종교의 자유는 또다시 증시되었으며 각종 종교활동도 점차로 활기를 띄게 되었다. 중국헌법에 의하면 인민은 종교의 자유를 누릴수 있다고 한다. 18세가 넘기만 하면 종족이나 출신이나 종교 신앙을 막론하고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다고 말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2장 34조에는 “중화인민공화국의 18세 이상의 성인인 민족, 종족, 성별, 직업, 가정출신, 종교신앙, 교육정도, 재산상황, 거주기간에 상관 없이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그러나 법률에 따라 정치권리를 빼앗긴 사람은 제외한다”(註1)라고 되어 있다. 이 헌법조항을 통해 우리는 종교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동

등한 권리를 가졌음을 알 수 있다. 동시에 헌법 제2장 제36조는 신앙자유 의의에 대하여 “중화인민공화국의 국민은 신앙의 자유가 있다. 어떤 국가 기관이나 사회단체나 개인이라 할지라도 국민이 종교를 믿거나 믿지 않도록 강제할 수 없으며 종교를 믿는 공민과 믿지 않는 공민을 차별할 수 없다. 국가는 정상적인 종교활동을 보호한다. 어떤 사람이라도 종교를 이용하여 사회질서를 파괴하거나 공민의 신체건강을 해치거나 국가교육제도의 활동을 방해할 수 없다. 종교단체와 종교사무는 외국세력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註2)라고 명시하고 있다.

헌법 제2장 제36조에서 말하고 있는 종교의 자유는 세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는 종교를 믿는 것은 자유이며 어떤 힘을 사용하여 종교를 믿거나 믿지 못하도록 할 수 없다. 둘째는 국가는 정상적인 종교활동을 보호한다는 것이다. 유의할 점은 종교활동의 보호가 아니라 ‘정상’적인 종교활동의 보호라는 점이다. 정상적인 종교활동이 있다는 것은 또한 비정상적인 종교활동이 있다는 것이며 정상적인 종교활동은 보호하지만 비정상적인 종교활동은 보호하지 않는다는 것을 암시하기도 한다. 셋째는 외국세력이 국내의 종교사무를 간섭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만약에 외국

에서 중국의 종교사무에 문서나 경제적 것을 포함하는 지원이 있다면 외국세력이 국내의 종교사무를 간섭하는 것이고 역시 위법적인 행위라는 것이다.

헌법에 “정상적인 종교활동”이라 하였으니 그렇다면 비정상적인 종교활동이 있는 것도 당연하다. 우선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을 “정상적인 종교활동”이라 하는가 하는 것이다. 이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마땅히 중국자신의 시각에서 보아야지 외국의 시각에서 보아서 안된다.

우선 알아야만 하는 것은 무엇을 “정상적인 종교”라 하는가이다. 이른바 정상적인 종교라 함은 중국정부가 관장하는 종교단체를 가리킨다. 이런 단체는 여덟 개가 있는데 이 여덟 개 단체가 하는 일이라야 비로소 “정상적인 종교활동”이다. 《사회주의시기에 있어서 우리 당의 종교문제에 대한 기본정책》이라는 글은 이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다.

“현재에는 전국적인 애국조직이 여덟 개가 있는데 중국불교협회, 중국도교협회, 중국이슬람교협회, 중국천주교애국회, 중국천주교교무위원회, 중국천주교주교단, 중국기독교삼자애국운동위원회, 중국기독교협회 등이 그것이다. 이밖에 약간의 종교성을 띤 사회단체와 지방종교조직이 있다. 각

단계의 애국종교조직의 기본임무는 당과 정부가 신앙자유정책을 실행·관철하도록 협조하고 수많은 신자들과 종교계인사가 끊임없이 애국심과 사회주의에 대한 깨달음을 높히도록 도우며, 종교인의 합법적인 편익을 대신하여 신도들을 조직하고 지도하여 정상적인 종교활동을 하게 하고 교회업무를 잘 처리하도록 하는데 있다. 모든 애국종교단체는 당과 정부의 영도를 받아들이는 것이 마땅하다.”(註3)

분명한 것은 당이 관장하는 종교 애국조직은 정상적인 종교단체이며 이러한 단체의 임무는 신자들로 하여금 애국사상을 인식하도록 돕고 아울러 사회주의의 이해를 증대시키도록 돕는데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종교단체의 활동은 정식으로 인가받은 것이므로 곧 정상적인 합법활동인 것이다.

정상적인 종교활동에는 명확한 한계가 정해져 있는데 그것은 일반적으로는 실내에서 이루어지는 종교활동을 가리킨다. 이런 정상적인 종교활동은 모두 정부의 보호를 받는다. 《기독교에 대한 관리를 강화시키기 위한 자료에 관하여》라는 글에서는

어떤 것들이 정당한 종교활동인가? 어떤 것들이 정당치 못한 종교활동인가? 중화인민공화국의 국민이 된 자는 종교를 믿거나 믿지

않거나 간에 모두 조국을 열렬히 사랑하고 사회주의를 옹호하며 공산당의 지도를 옹호할 의무를 가진다. 이러한 전제 하에 ①사람들은 종교를 믿을 수 있다. ②신도들은 자기집에서 성경을 찾고 기도하며 집회할 수 있다. ③신도들은 합법적 종교장소에 가서 집단적인 종교활동을 할 수 있다. ④교역자들은 합법적인 종교활동장소에서 종교활동을 할 수 있다. 이상의 것들은 모두 올바른 종교활동이며 합법적으로 정부의 보호를 받는다.(註4)

라고 말하고 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외에 지정된 종교활동장소나 집안에서 행해지는 여타의 각종 종교활동은 모두 합법적이라 칭해진다.

《사회주의시기에 있어서 우리당의 종교문제에 대한 기본정책》이란 글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종교활동장소에서 진행되는 일체의 정상적인 종교활동, 이를테면 拜佛, 讀經, 焚香, 禮拜, 기도, 설법, 설교, 미사, 세례, 장례미사, 종교절기를 지키는 것과 관습적으로 집안에서 행해지는 제사, 추도식 등은 모두 종교조직과 신도들이 스스로 알아서 처리할 일로서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어느 누구라도 간섭할 수 없다. 모든 종교활동장소는 종교활

동주무부서의 지도하에 종교조직과 교역자가 책임을 지고 관리한다.”(註5)

이상의 이튼에 따르면 정당하거나 정상적인 종교활동은 두 곳에서 행해질 수 있다. 그 하나는 정부의 종교사무부서의 지도하에 있는 종교장소이다. 이런 장소안에서 벌이는 종교활동에는 갖가지 종교활동이 포함된다. 또 하나는 집안에서 행해지는 종교활동으로 기도나 성경공부, 집회틀 여는 것 등이다. 그러나 이것이 결코 가정교회의 집회틀 의미한다고 오해해서는 안 된다.

중공은 내심으로 가정교회는 정당하지 못하며 사회발전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중공은 가정교회틀 억제하려고 하며 그 수를 감소시키려 하는 것이다. 《기독교에 대한 관리를 강화시키기 위한 자료에 관하여》라는 글 속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있다. “우리나라의 교역자는 매우 적다. 세례받은 교인마저 많지 않다. 절대다수는 최근 2~3년동안에 믿게 된 사람들이어서 그에 상응하는 종교지식이 없다. 이런 사람들이 「家庭集會」라는 간판을 걸어놓고 집회활동을 하여 매우 혼란스럽다. 이러한 집회처소는 생산에 불리하고 사회질서를 오히려 妨害하기 때문에 정당하지 못하다. 그리고 이런 올바르지 못한 집회는 반드시 관리해야 하고 설득과 교

육, 적극적으로 인도하는 방법으로 계
도해서 점차 감소시키고 축소시켜 나
가되 신도들과 대립이 일어나지 않도
록 합부로 불법으로 규정해서는 안된
다.”(註6) 당국에 의해 올바르게 못하
다고 여겨지는 이들 가정교회는 그렇
다고 해서 당장에 완전히 금지 되지도
않고 있다. 집회장소가 쉽게 변동되는
원인은 물론 정부는 신도들과 대립하
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도 신
중히 고려하고 있다. 「林獻羔事件」은
중국정부가 가정교회를 파괴하고자 수
시로 기회를 엿보고 있으며 비정상적
인 것으로 비쳐지는 종교활동의 축
소와 금지를 희망하고 있음을 반영해
준다.

중국정부가 말하는 종교의 자유는
진정한 종교의 자유가 결코 아니다.
종교정책하의 종교의 자유란 당이 영

도하는 종교조직을 가리킨다. 이들 정
당한 종교조직이 거행하는 활동은 자
유로운 종교활동이며 합법적인 종교활
동이다. 만약 이러한 조직에서 저리하
는 종교활동이 아니라면 그것은 곧 올
바르지 못한 것이고 보호받지 못하는
활동인 것이다.

한 교회가 당의 영도하에 있고
하나님이나 교역자의 영도하에 있지
못하면 이 교회는 이미 독립성을 잃고
정부관할하의 한 부서나 조직으로 전
락하여 자유와 자립의 정신을 잃어버
리게 된다. 현재 중국의 이와 같은
종교정책은 쉽게 변경되지 않을 것이
다. 홍콩의 교회와 신도들은 중국의
종교정책을 명확히 알 필요가 있으며
내일의 교회를 위하여 준비하면서 출
구를 모색해야 한다.

<번역: 연구부>

註1) 福音證主協會 編 《中國教會知多少》 p.121

註2) 엇 책 p.121~122 및 中共問題原始資料編輯委員會 編 《中共怎樣
對待宗教》上 p.107

註3) 趙天恩 著 《中共對基督教政策》附錄 p.262

註4) 엇 책 p. 252

註5) 엇 책 p. 262

註6) 엇 책 p. 253



이 작은 불씨가 중국으로 ...

할렐루야!

먼저 신실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녹음이 한창 우거진 7월 16일, 우리 중국어문선교회 일행 30명은 1박 2일 일정의 수련회를 위하여 약간은 들뜨고 기대에 찬 마음으로 경기도 양주군을 향해 출발하였다.

도심의 번잡하며 탁한 공기와 소음을 벗어나서 기분도 상쾌하게 가는 길목은 자연의 여운을 만끽하게 해주었고 더우기 밤의 출행은 신비스런 정감과 흥취를 더하여 주었다. 그곳 새터 교회 박성아 전도사님의 환영을 받으며 교회에 들어서니 시간은 밤 10시가 조금 넘었다. 이동화 간사님의 사회와 전도사님의 말씀으로 개회예배 순서를 마치고 박성주 교수님의 중국내 조선족 중국어 교학현황과 중국 교회의 실정이 담긴 슬라이드 상영을 보고나니 예정보다 늦은 밤 1시가 넘어서야 잠자리에 들수 있었다. 모두들 잠자리에 든 시간 우리 몇몇 자매들은 한데 모여 하나님께 찬양을 올렸다. 이 교회는 성령충만한 교회라고하며 찬송가 1장부터 끝까지 밤새도록 다 부르자는 자매도 있어 나를 감동케 했다.

다음날 이른 아침 빌립보서 2장 1절-11절의 말씀으로 갖은 "경건의 시간" 프로그램은 참 좋았다. 그리스도의 겸손한 마음은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를 낮추는 그리스도의 모범된 마음이며 그리스도의 말씀속에서 하나 되는 마음이다. 곧 그리스도의 특성이며 외양만이 아닌 영원히 변치 않는 본질적인 믿음이며 자기 희생물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임을 깨닫게 해주었다. 아침 식사 후 각부 세미나로 이어져 번역부, 교육부, 정간부, 연구부, 총무부의 발표가 있었는데 번역부의 잘 준비된 번역연습은 중국어 연습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또한 교육부 주관의 중국어 연수계획 발표도 있었는데 이 연수코스는 중국어를 학습하는 한편 준비된 달란트를 선교에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좋은 매체가 되리라 생각 되었다. 이 연수강좌에 많이 참여하여 복음으로 무장하고 언어로 훈련하면 선교활동에 큰 밑거름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이번에는 꼭 연수를 받고 싶은 욕심이 생겼다.

점심식사 후 가진 코이노니아(친교)시간에는 수화로 복음성가도 부르고 게임인도에 따라 오랜만에 파안대소하며 즐

거운 시간을 가졌는데 얼마나 웃었던지 내 자신이 바보스럽게까지 느껴졌다. 또 이번 수련회중 인상 깊었던것은 회원의 명찰을 순수한 이튿석자만 쓴것인데 무척 호감이갔다. 요한복음 15:5 말씀대로 모든 신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동등한 자격과 권리를 가진다는 말씀에 부합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처음부터 끝까지 좋은 메뉴로써 맛깔스런 식사와 그때 그때 적절한 간식을 알뜰하고 상큼하게 장만해주신 이홍자사모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음식뿐 아니라 겸허하신 자세로 설거지 등 굵은일을 하시며 심지어 비빔을 것을 염려하여 회원들의 신까지 일일이 종이불 깔고 방으로 들여 놓는 모습을 봤을때 가슴이 뭉클해지고 예수님께서 재자들의 발을 씻기시던 사랑과 자비하신 모습을 보는듯 했다.

폐회 예배에서 하신 김태수목사님의 말씀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은 주의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는 생명을 보존시킬 수 가없다. 그리스도와 하나되는 행위들 통해서만 전달받을 수 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양식이 어떠해야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받을 수 있는지 새삼 자신을 돌이켜 본다.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만나고 사귀는 모든 사람

들의 관계가 자신의 말과 행동으로 타인의 인생관까지도 바꿀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며 나아가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달하여 구원받을 수 있도록 내 자신 혼련하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겠다고 새삼 깨닫게 되었다. 내 능력으로는 결코 가능하지 못하나 항상 기도하는 자세로 이번에 받은 교육의 실천자가 되어보고자 결심해보면서...

사랑의 하나님!

연수기간 동안 처음부터 끝까지 많은 프로그램에 차질없이 눈동자 같이 우리를 살펴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가진 이번 선교수련회가 작은 불씨가 되어 성령의 봉화불로 이어져 증극을 향하여 번져나가고 또 세계 공산권의 복음화가 이루어 질것을 굳게 믿고 받은 바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 아멘-



재정보고 (6 월)

재정보고 (7 월)

수 입		지 출	
전월이월	577,390	임 대 료	300,000
후 원 금	773,000	사 례 비 (2명)	300,000
(선교여행헌금)		회지계좌 (6호)	
단 계	240,000	(회원카드포함)	71,000
개 인	100,000	노인회지원금	10,000
선교헌금	44,000	선교헌금	10,000
		선교여행예치금	
		월정기금	150,000
		단 계 및 개 인	340,000
		세미나강사료	30,000
		도서구입	47,500
		복 사	5,840
		전 화 료(fax포함)	42,530
		컴퓨터디스크	10,000
		사 무 비	28,570
		우편발송료	29,380
수 입 계	₩ 1,734,390	지 출 계	₩ 1,374,820
		차기이월	₩ 359,570

수 입		지 출	
전월이월	359,570	임 대 료	300,000
도서출판헌금	100,000	사 례 비(2명)	300,000
후 원 금	850,000	세미나강사료	30,000
하기수번회잔익	23,220	고계개발비	100,000
		노인회지원금	10,000
		도서구입	14,500
		복 사	28,860
		우편발송료	37,800
		사무비(도서비품)	23,800
		전 화 료(fax포함)	40,130
		선교여행예치금	150,000
		선교지원헌금	10,000
		수번회지원금	50,000
		컴퓨터 리본	10,000
		출장비(번역)	20,000
		자연봉사자 및 정간부	
		접 대 비	51,500
		신문대금	4,000
수 입 계	₩ 1,332,790	지 출 계	₩ 1,180,590
		차월이월	₩ 152,200

수련회 경비

수 입		지 출	
회 비	150,000	식 비	129,380
찬 조 금	35,000	간 식(떡)	20,000
사무실지원금	50,000	복사비(팜프렛외)	12,400
		헌금(수번회장소)	50,000
		잔 익	23,220
합 계	₩ 235,000	합 계	₩ 235,000

선교여행기금현황 (5월, 6월, 7월)

월정기금 150,000 * 3個月 =	₩ 450,000
단체및 개인	₩ 340,000
합 계	₩ 79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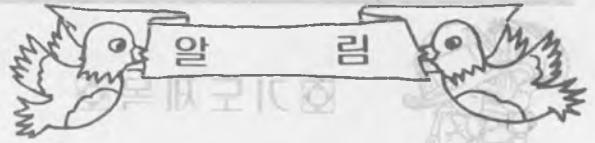


♡ 후원자상황 (6월) ♡

구규식, 고희정, 김구성, 김근수, 김승원, 김성순, 김신봉, 김순임, 김의덕, 김은숙, 김원영, 김한성, 강정애, 노숙자, 노재은, 문정희, 박동화, 박성주, 박지석, 박종표, 백정숙, 박지화, 박혜영, 박주서, 빈미정, 신순남, 신길순, 석귀희, 신흥식, 이지순, 은연자, 양혜선, 이의선, 이은자, 이영희, 이영숙, 이동화, 이덕형, 이석영, 임종명, 원유앙, 왕사악, 은명자, 전옥규, 정계순, 장경순, 천은철, 한승희, 남궁양석, 서진, 민진, 안병국, 신림교회, 충정교회, 동승교회, 선교여행헌금 : 박지석, 단체 : 한국방송통신대학중국어성경반, 헌물(세미나간식) : 서진, 헌물(사무실 마련헌금) : 노숙자.

♡ 후원자상황 (7월) ♡

구규식, 고희정, 김구성, 김근수, 김승원, 김성순, 김순임, 김은숙, 김원영, 김만섭, 김한성, 김정하, 노재은, 문정희, 박동화, 박성주, 박종표, 박주서, 박혜영, 빈미정, 신순남, 신길순, 신흥식, 석귀희, 이덕형, 이동화, 이지순, 이진호, 안순덕, 왕사악, 임종명, 정계순, 장경순, 최경생, 한승희, 남궁양석, 민진, 서진, 정일, 안병국, 동승교회, 신림교회, 충정교회, 도서출판헌금 : 은명자, 헌물(세미나간식) : 서진, 헌물(수련회간식) : 이지순



◎ 제1회 하기 수련회가 지난 7월16, 17 양일간 남양주군 마석리 새터교회에서 31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은혜롭게 마쳤습니다.

◎ 선교 중국어 연수가 중급과정으로 9월달부터 4개월 코스로 시작됩니다. 상세한것은 별도 광고를 참고하시고 주위에 널리 소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6월, 7월 월례세미나가 한성증화교회 왕사악 전도사님을 모시고 중국교회사 I (당대부터 청말 카톨릭선교까지) 중국교회사 II (1807 - 1900) 를 주제로 각각 개최되었습니다. 8월 월례세미나도 역시 6월과 7월세미나에 이어 중국교회사 III (1901 - 1949)를 주제로 8월 27일(月) 오후7시 본 선교회 사무실에서 개최되오니 많은 참석 바랍니다.

◈ 회원동정 ◈

◎ 박성주 대표간사께서 지난4월 한국방송통신대 중국어과학과장으로 취임 하셨습니다.

◎ 이동화 총무간사께서 8월18일 10주간 예정으로 중국선교단체 방문을 위하여 홍콩으로 출국합니다.

◎ 김성순 사무간사, 노재은, 이민선 회원께서 대만 기독교정병훈편 참석자 8월 6일 약3주간예정으로 출국하셨습니다.

◎ 김영석 회원께서 8월1일 어학연수자 대만으로 출국하셨습니다.



☞ 기도제목 ☞

◎ 화보 <기독교와 중국> 과 <중국선교 핸드북>의 번역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오역이 없도록 출판재원 마련을 위해, 출판후 판료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본 선교회의 선교여행 계획의 일환으로 대만·홍콩·대륙등지로 출국한 형제·자매들이 모두 6명이나 됩니다. 이 분들의 건강, 물질, 학업과 선교의 열매, 동역자와의 만남등을 위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선교회사역이 본 궤도에 오르기 위해서는 앞으로 전임 연구원 2명 전임 정간플간사 1명이 더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일에 소명감을 가진 일꾼도 드물지만 혹 있더라도 이 일에 헌신 하도록 여건이 조성되어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일할 일꾼과 그 일꾼들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속히 조성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 출판기금 마련을 위하여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제 곧 화보원고가 출판사로 송고되어 작업에 들어갈 터인데 아직 준비가 미흡합니다.

◎ 한동안 중단 되었던 '선교 중국어 연수' 프로그램이 9월부터 4개월간 다시 진행됩니다. 이 프로 그램에 참여할 형제·자매님들이 마음을 합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용두사미가 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편집후기 ☞

이번호에는 정기세미나가 2회분이 한꺼번에 실리게 되었다. 회원 여러분들이 과거 중국기독교사를 이해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이번호는 미리 서두른 관계로 여유있게 제작할 수가 있게 되었다. 찌는 듯한 더위속에서도 수고를 아끼지 않은 양혜선 자매, 석귀희 자매, 이은자 자매, 김한성 형제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많은 형제 자매들이 출국하였거나 출국을 준비하고 있다. 회원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기도가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한다.



使徒信經

我信上帝、全能的父、創造天地的主。

我信我主耶穌基督，是上帝的獨生子，因聖靈感孕，爲童貞女馬利亞所生，在本丟彼拉多手下受難，被釘在十字架上，受死，埋葬，降在陰間，第三天從死裏復活，升天，坐在全能父上帝的右邊，將來必從那裏降臨，審判活人、死人。

我信聖靈，我信聖而公之教會，我信聖徒相通，我信罪得赦免，我信身體復活，我信永生。阿們。

Wǒ xìn Shàngdì, quánnéng de fù, chuàngzào tiāndì de zhǔ.

Wǒ xìn wǒ zhǔ Yēsū Jīdū, shì Shàngdì de dúshēngzǐ, yīn Shènglíng gǎnyùn, wéi tóngzhēngǚ Mǎlìyà suǒshēng, zài Běndiū Bǐlādō shǒuxià shòunàn, bèi dīng zài shízìjiàshàng, shòusǐ, máizàng, jiàng zài yīnjiān, dì sāntiān cóng sǐlǐ fùhuó, shēngtiān, zuò zài quánnéngfù Shàngdì de yòubiān, jiānglái bì cóng nàlǐ jiànglín, shěnpan huórén, sǐrén.

Wǒ xìn Shènglíng, wǒ xìn shèng ér gōng zhī jiàohuì, wǒ xìn shèngtú xiāngtōng, wǒ xìn zuì dé shèmiǎn, wǒ xìn shēntǐ fùhuó, wǒ xìn yǒngshēng. Āmen.

[발음기호: 한어병음자모]

主禱文

我們在天上的父，願人都尊你的名為聖，願你的國降臨，願你的旨意行在地上，如同行在天上。

我們日用的飲食，今日賜給我們。

免我們的債，如同我們免了人的債。

不叫我們遇見試探，救我們脫離凶惡。

因為國都、權柄、榮耀全是你的，直到永遠。阿們。（馬太福音6:9-13）

Zhǔdǎowén

Wǒmen zài tiānshàng de fù, yuàn rén dōu zūn nǐ de míng wéi shèng, yuàn nǐ de guó jiànglín, yuàn nǐ de zhǐyì xíng zài dìshàng, rútóng xíng zài tiānshàng.

Wǒmen rìyòng de yǐnshí, jīnrì cì gěi wǒmen.

Miǎn wǒmen de zhài, rútóng wǒmen miǎn le rén de zhài.

Bú liào wǒmen yùjiàn shìtàn, jiù wǒmen tuōlí xiōng'è.

Yīnwèi guódū, quánbǐng, róngyào, quán shì nǐ de, zhí dào yǒngyuǎn. Āmen. (Mǎtài fúyīn 6:9-13)

[발음기호: 한어병음자모]